



Vol.98

2025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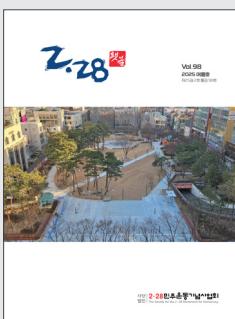
제25권 2호 통권 98호



사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법인 |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CONTENTS

2025 여름호 vol.98



표지사진

2·28기념중앙공원

대구시는 2·28기념중앙공원을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공원은 잔디광장, 버스킹존, 돌담길 등을 갖춘 개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되었다.

04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가요제

09 2·28 주요소식

- 1) 2·28대학 제12기 성황리에 운영
- 2) 2·28청년아카데미 제7기 운영
- 3) 2·28도서관, 전 세대를 위한 봄맞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4) 2025년 전국 주요 기념식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동참
- 5) 2025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 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연일 이어지는 방문 행렬

22 제5차 2·28경북포럼

- 1) 제5차 '2·28경북포럼', 경주서 성황리 개최
-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와 한국정치에의 함의 (표광민)
- 3) 2·28민주운동 정신과 현실 정치 (안도현)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회비** 정회원 30,000원 / 후원회원 개인 100,000원, 단체 1,0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금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44 인문학의 향기

- 1) 네 변의 여름 (배진우)
- 2) 봄을 피운 나무 (정시식)
- 3) 경산 팔공산 숫갓바위와 암갓바위 (김약수)

51 청년의 목소리

대한민국 재가동,
'지도자'가 아닌 '경영자'를 원한다
(김채훈)

54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3

이란 편 (박순국)

64 달구벌 풍수 산책 9

남평문씨 인홍세거지의 三相미학(하)
(이몽일)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성공적 개최

- 전국 229개 팀 예선참가,
대상 ‘충격팀(대전산업정보고)’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광대훈)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후원한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Fly to The Dream’이 지난 5월 3일(금) 오후 5시,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29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며, 청소년들의 K-pop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가요 5팀, 댄스 5팀 총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1



2

1. 심사위원 2. 축포

가요 부문 본선에는 누비다밴드(경산), 임지혁(광명), 충격(대전), 조민주(서울), 아! 청춘(서울), 댄스 부문에는 WELLBOSS CREW(서울), piece dreamer(대전), 최아인(구미), M플리오리트(대구), 아홉(완주) 등 전국에서 선발된 팀들이 출전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30여 명의 시민 심사위원단과 4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함께한 본선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이 빛나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됐다.

대상은 가요 부문 참가팀인 '충격'(대전산업정보고 실용음악과)이 차지하며 영예의 대상 주인공이 되었고, 가요 부문 '아! 청춘'(서울)과 댄스 부문 'WELLBOSS CREW'(서울)이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0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 됐다.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공연 모습

본선 무대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가수 이상미씨는 “무대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진심과 열정, 에너지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꿈을 향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Fly to The Dream’은 2·28민주운동의 청년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꿈을 응원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 현장 스케치는 유튜브 채널 2·28TV를 통해 다시보기로 감상할 수 있다.



1



2

1. 심사위원장 가수 '이상미' 2. 가요제 시상식 장면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수상자 단체 사진

현장 스케치



대상 「충격」(대전)



금상 「아! 청춘」(서울)



금상 「웰보스 크루」(서울)



은상 「M플리오리트」(대구)



은상 「조민주」(서울)



동상 「피스드리머」(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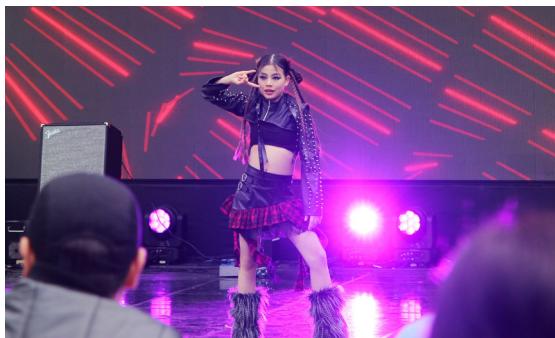
동상 「누비다밴드」(경산)



동상 「임지혁」(광명)



동상 「아홉」(완주)



동상 「최아인」



2 · 28
주요소식



- 01** 2·28대학 제12기 성황리에 운영
- 02** 2·28청년아카데미 제7기 운영
- 03** 2·28도서관, 전 세대를 위한 봄맞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04** 2025년 전국 주요 기념식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동참
- 05** 2025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 0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연일 이어지는 방문 행렬

01



2·28대학 제12기 성황리에 운영

2·28대학은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대구 시민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매 기수마다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하여 깊이 있고 질 높은 강의를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8평생교육원(원장: 최교만)이 주관하는 제12기 2·28대학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전하는 다양한 강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4월에는 2일 김병두 인문학 강사의 "영화 속으로 떠나는 추억여행"을 시작으로, 9일 윤순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치와 민주주의", 16일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의 "대구 부활과 2·28정신", 23일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의 "목적없는 소요: 터벅터벅의 풍류론", 30일 이승옥 트로트 가수의 "노래 잘하는 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5월에는 유익한 강의가 계속되었다. 14일 방경곤 전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의 "건강하고 존경받는 어르신"을 시작으로 21일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독립과 민주주의", 28일 김도상 전 대구어린이회관 관장의 "대구 사랑, 대구 자랑" 강의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6월 4일에는 임수무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의 "'평천하'부터 시작해봅시다"를 주제로 12기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했으며, 이어 제12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28대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장으로, 앞으로도 대구시민과 2·28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널리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병두 인문학 강사



윤순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



방경곤 전)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김도상 전) 대구어린이회관 관장



제12기 2.28대학 수료식

02

2·28청년아카데미 제7기 운영



‘2·28청년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여, 지역 청년들이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7기 아카데미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청년들이 지원하였으며, 4월 17일(목) 첫 강의로 김노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 2·28민주운동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의 후에는 청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4월 24일에는 김정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헌법 개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5월에는 다채로운 주제로 총 4회의 강의 및 현장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지난 5월 8일





황찰리 경북과학대학교 초빙교수의 “클래식과 재즈의 향연” 강의에 이어 5월 15일 최용호 경북 대학교 명예교수의 “60년 전 청년과 오늘의 청년이 만나다” 강의가 이어졌고, 5월 22일에는 이상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대구·경북을 빛낸 예술가들, 그들의 이야기” 강의가 진행되었다.



5월 31일에는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방문해 “2·28정신과 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선비 정신과 2·28민주운동의 가치를 연결지으며,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03 2·28도서관, 전 세대를 위한

봄맞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부터, 2·28도서관에서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 한 '저자와 함께 하는 그림 속 꽃길을 걷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며 운영되고 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책을 읽고 자연물을 이용해 이야기를 표현하는 활동 및 매 회차마다 만들기 활동을 통해 손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4월 12일에 열린 1회차에서는 "별나라 사람 무얼 먹구사나"를 함께 읽고, 나뭇잎을 활용해 캔버스를 꾸미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2회차는 "곤을동이 있어요"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동백꽃을 만들었으며, 3회차에서는 "미스 럼피우스"를 주제로 작은 선행의 의미를 되새기며 루핀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은 가정의 달 5월에도 이어졌다. 2·28도서관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독서



엄마와 함께 떠나는 알콩달콩 동화구연



저자와 함께하는 그림 속 꽃길을 걷다



스마트한 스마트폰 활용법



마음이 자라는 책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한 스마트폰 활용법’은 5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SNS 소통법, AI 이미지 생성,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다루며, 대구 지역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4층 강좌실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로 ‘마음이 자라는 책놀이’는 5~6세 유아 12명을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운영된다. 유아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함께 떠나는 알콩달콩 동화 구연’은 3~4세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에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동화를 듣고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따뜻한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자세한 문의는 유선) 053-257-2280으로 안내하고 있다.

04 2025년 전국 주요 기념식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동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켜온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2·28정신을 전국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되새기고 연대의 의미를 되짚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참석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1960년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한 역사적 의거를 기렸다.

2·28기념사업회에서는 곽대훈 회장,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단장이 참석해, 3·15의거가 2·28민주운동을 비롯한 전국 민주화운동의 불씨로 이어졌음을 되새기고, 유공자 및 유족들과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 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서울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되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현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28기념사업회에서는 곽대훈 회장을 비롯해,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단장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4·19혁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와 정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28기념사업회에서는 곽대훈 회장, 이양강 원로위원회 위원장, 진덕수 부회장,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단장이 함께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타올랐던 민주주의의 정신을 오늘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 역사적 의미와 민주적 가치를 계승하자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2·28기념사업회는 이번 참석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운동의 연대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 참석

6월 1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화운동 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유가족,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했다.

2·28기념사업회에서는 곽대훈 회장,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단장이 참석해, 1987년 6월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2·28민주운동에서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과 그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

05



2025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2025년 제2차 임시총회가 5월 27일(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가 있었고, 제1호 의안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2·28청년 아카데미 등 주요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각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도 함께 공유되었다. 아울러 향후 추진 예정인 2·28경북 포럼을 비롯한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06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연일 이어지는 방문 행렬

4월에도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견학과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4월 4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한 3·8민주의거기념관 관계자 4명이 회관을 방문해 회의를 진행했다. 2·28민주운동과 대전 3·8민주의거가 지닌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두 기념관의 협력 방안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18일 영선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회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 2·28민주운동’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전시관을 견학했다.

4월 29일에는 KBS광주와 TBC 방송 관계자들이 전시관 촬영 스케치를 위해 회관을 방문하여, 1층 전시관을 중심으로 주요 전시물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관심은 5월에도 이어졌다. 5월 7일에는 경북고등학교 동창회 22명이 회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 2·28민주운동'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1층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5월 9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60명이 회관을 찾아 전시관을 견학하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어 5월 17일에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2·28민주운동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백재호 사무처장의 해설과 함께 1층 전시관을 중심으로 기념회관을 둘러보았다.



제5차 ‘2·28경북포럼’ 경주서 성황리 개최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에서
2·28민주운동 정신의 현대적 가치 조명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장 곽대훈)는 6월 18일(수), 경상북도 경주시 보훈회관에서 '2·28민주운동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5차 「2·28경북포럼」을 개최했다.

‘2·28경북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경북도민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경상북도 전역에서 순회하며 열리는 정례 학술포럼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곽대훈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번 포럼이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2·28민주운동 정신의 현대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표광민 경북대학교 교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와 한국 정치에의 함의’를, 안도현 영남대학교 교수가 ‘2·28민주운동 정신과 현실 정치’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명훈 포스텍 교수,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 남기문 3·15

민주의거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정혜숙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사회와 국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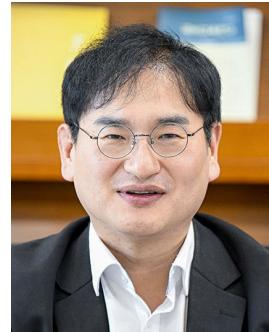
이번 포럼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대구 경북이 지닌 민주주의 유산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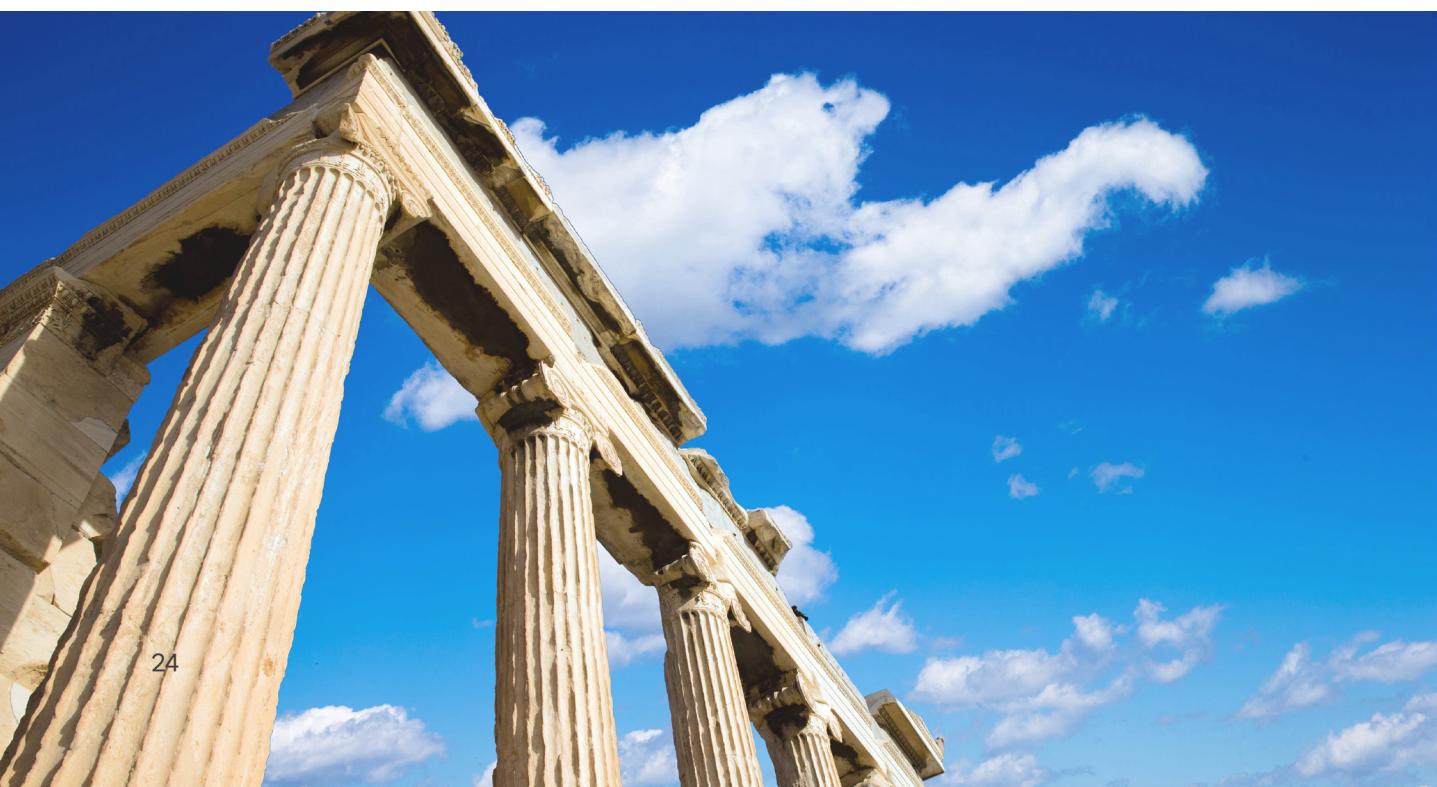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와 한국정치에의 함의

이 발표문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 대통령 탄핵 판결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향후 우리 사회가 안정된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작게나마 참고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작성되었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치적 위기와 혼란의 상황에서 정치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정치질서의 지향점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와 현재적 상황을 검토하고, 우리 정치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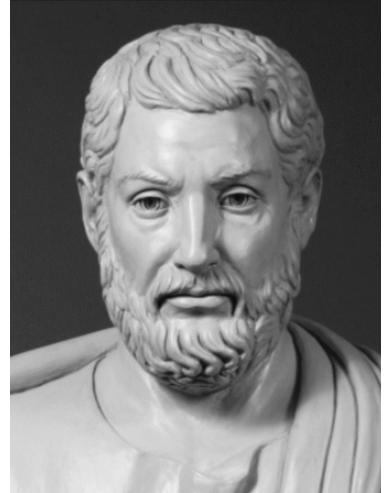


표광민 (경북대학교 교수)



1.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본래적 의미

자유주의와 융합하기 이전의 민주주의는 본래 통치 개념으로서 특정한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democracy)는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Demos)이 지배(Kratos)하는 통치체제를 가리켰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초반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클레이스테네스 개혁의 요체는 대귀족들의 노예로 전락해 있던 시민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정치의 주체로 만드는 데에 있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시민의 지위를 회복한 이들을 위한 ‘데메(deme)’라는 단위를 새로



클레이스테네스

편성한다. 이후 데메는 시민들의 거주지역 및 해당 데메 거주민들의 등록명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주체로 등장한 데모스(demos)는 이러한 데메 거주민을 뜻하는 말이었다(Martin 1995). 이와 같이 구성된 데메 거주민들, 즉 시민들은 민회(ekklesia)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테네 민주주의를 운영했다. 민주주의 수립 이후 의결된 사항들은 “έδοξε τῷ δῆμῳ”(edoxe toi demoi, 시민에 의해 의결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표되었다(Hansen 1984, 18-20; Carey 2017, 63).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정체 구분은 권력개념, 통치체제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이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3가지로, 지배자의 숫자에 따라 1인이 지배하는 군주정(kingship),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정(aristocracy), 다수가 지배하는 입헌정(politeia)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동체적 지향으로부터 이탈하여 지배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체로 폭군정(tyranny), 과두정(oligarchy), 민주정(democracy)이 각각 대응한다(Aristotle 1959, 281-285). 이처럼 시원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속성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시민권, 인권,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등은 고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근대에 형성된 자유주의와 만나면서 시민 집단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부터 확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하게 된다.

한편,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에 대항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정치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적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근대의 이론적, 실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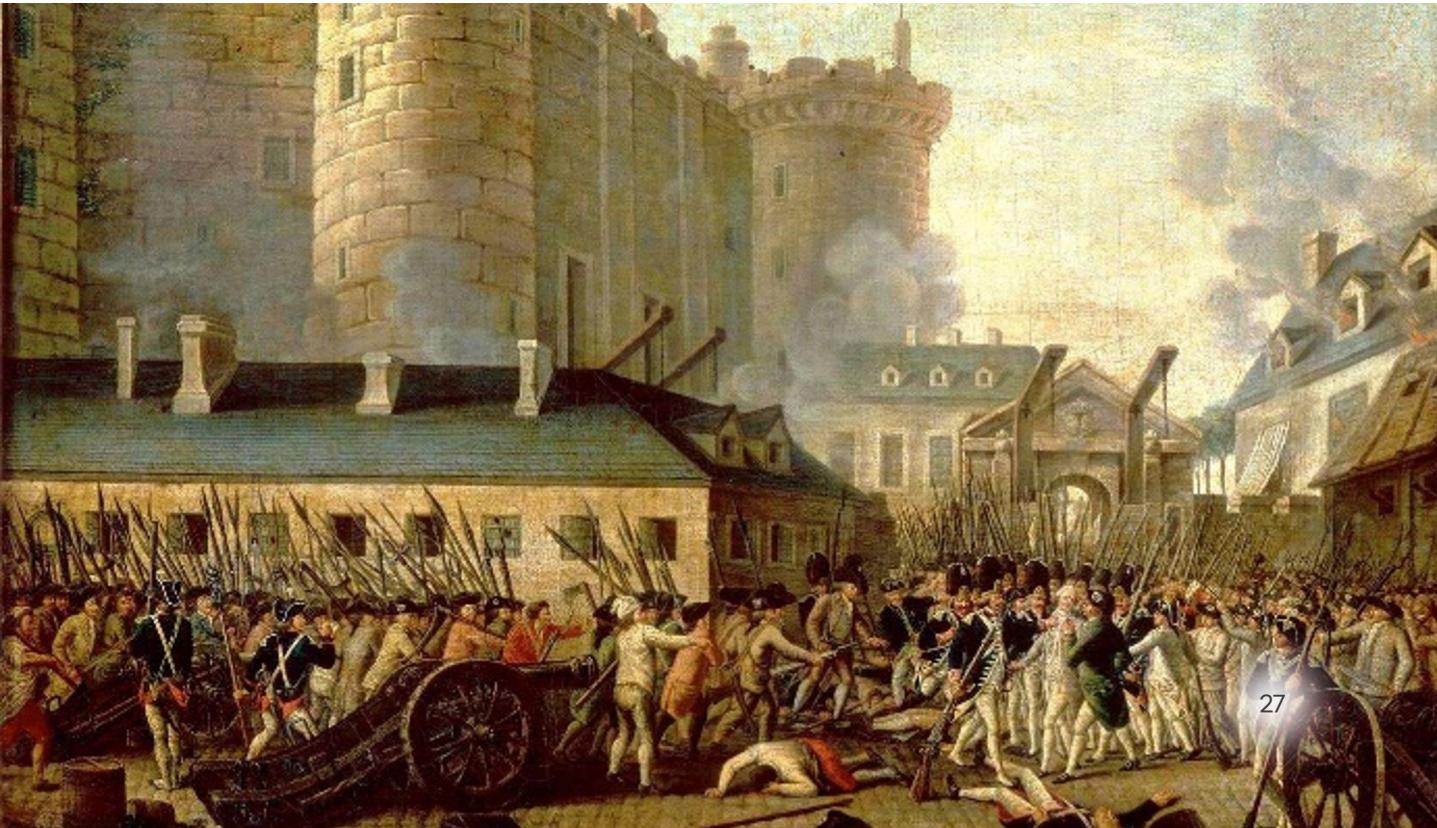
13세기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노력 속에서 형성되었다. 물론 근대 자유주의가 하나의 단일한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자유주의는 13세기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부터 시작되어 토머스 흉스와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으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혁명은 왕이 없는 국가 체제를 실현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설립을 시도했다. 프랑스는 인문주의자들이 이끄는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으로, 독일은 칸트(Immanuel Kant), 헤겔(G. W. F. Hegel) 등 철학적 관념론에 기반한 계몽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다양한 역사적, 이론적 연원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주의적(individualist), 평등주의적(egalitarian), 보편주의적(universalist), 사회개선적(meliorist)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에 대한 존중은 개인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사이의 평등을 도출시킨다. 또한 집합적 정체성보다 개인을 우선시함에 따라, 모든 인간을 국가 및 민족 등의 구성원이 아닌, 전 인류의 한 개체로서 바라보는 보편주의적 시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평등주의적, 보편주의적 지향성은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사회개선적 성격을 갖는다(Gray 2003, xii). 자유주의는 영국 명예혁명(1688년), 미국 독립혁명(1776년), 프랑스 혁명(1789년) 등을 통해 정치체제의 근본이념으로 수립되었다. 이들 근대 시민혁명은 군주의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사회의 기본원리로 확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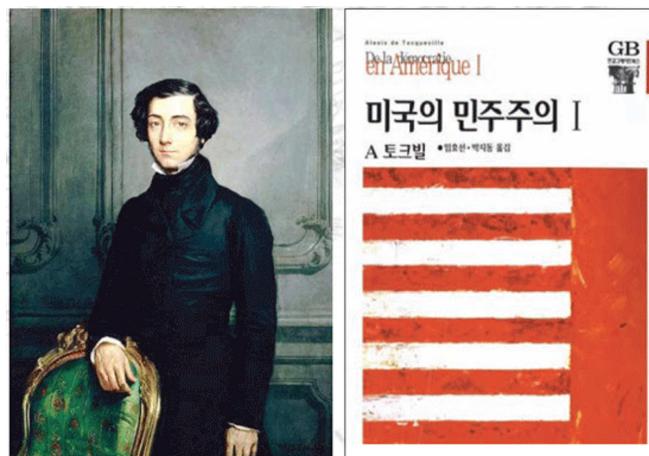
2.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융합

근대 이후의 정치질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두 정치사상의 융합을 통해 시민사회의 형성, 인권의 보장, 법치국가의 확립 등 팔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근대 자유주의는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통치체제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융합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두 사상체계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융합시킨 매개체는 근대에 등장한 '개인'이라는 개념이었다. 노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는 이러한 개인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공유하는 시작점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 사상사는 유기체주의(organicism, hol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 atomism)의 이원론적 대립과정으로 요약된다. 보비오는 근대 자유주의자 뱅자맹 꼴스땅(Benjamin Constant)이 제안한 고대 민주주의와 근대 자유주의의 대비를 거부하며, 실제로는 고대의 유기체주의와 근대의 개인주의 사이의 대립이 정치갈등의 근원이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유기체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신체로 이해하며, 국가의 구성원인 개별 인간들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폴리스가 개별 시민들보다 앞서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은 정치의 기본 주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바라보는 고대의 유기체주의 사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근대 개인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선후 관계를 역전시켜, 개인이 우선 존재하고 이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개인주의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 습격



정치사상의 시작은 흉스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만이 존재하며 이 개인들이 상호파괴를 막기 위해 정치체제를 구성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순서를 개념적으로 재배치했다. 이후 로크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를 거쳐 개인은 국가에 선행하여 이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근대적 사유가 확립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음을, 그리고 국가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근원을 자유로운 개인들의 동의에서 찾음으로써, 권력 자체를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이 개인을 매개로 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Bobbio 2005, 41-43). 융합 이후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정치체제나 정치이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에서 발견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융합을 거쳐 생활양식으로 일상화된 민주주의였다. 토크빌은 미국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정부활동에 참여하는 권력행사의 방식 뿐 아니라, 시민들이 “공적 모임에 참여하여 정치연설을 듣는” 것과 같은 일상적 행동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통치체제, 권력체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사소한 습관들 속에 스며들어” 존재하게 된 것이다(Tocqueville 1839, 247). 20세기에 이르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융합은 더욱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특정 시민 집단의 배타적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던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태생, 가족, 물질적 또는 문화적 부(富)”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외부의 억압 없이 우호적 협력관계를 함께 누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Dewey 1998, 3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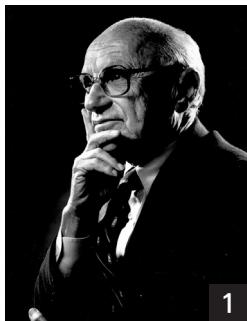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1991년 7월 31일 당시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러 기자회견 (출처: AFP 연합뉴스)

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융합의 해체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은 냉전의 종식 직후에 해체된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2차 대전 종전 이후 시작된 전 세계적 이념 대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물론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 비밀투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법치주의, 인권존중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Fukuyama, Francis)는 냉전 직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헤겔의 역사의 종언 개념을 받아들여, 냉전 해체의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볼셰비즘, 전체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다른 체제들과 경쟁 끝에 승리함으로써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정치체제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Fukuyama 1989, 3). 이에 따라 냉전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질서로서 자연히 전 세계에 확산되리라는 기대감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보편적 세계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은 해체되었다. 그 핵심요인은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극단화되며 민주주의와 결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압제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 금지와 개인의 이익



1.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
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추구 활동에 대한 존중을 특히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리를 정치 영역 전반으로 확장시키며,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정치에 적용시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지와 동의에 기반해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신자유주의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정치 영역이 경제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게 된 것이다(Harvey 200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을 해체시킨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 영역을 정치의 우위에 놓을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으로부터 정치의 정당성 자체를 도출한다(Foucault 2004, 125).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공동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다는 관념에 기반해 있다. 개인을 통해 민주주의와 결합되었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로 극단화되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의 습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통한 부의 증대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고가 지지를 받게 되면서,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이 곧바로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건축이나 회화, 과학이나 문학, 산업이나 농업 등에 있어서 문명의 위대한 진전은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는 콜럼버스, 뉴튼, 셰익스피어, 에디슨, 포드, 슈바이처 등의 위인들을 열거 하며, “그들의 업적은 개인적 재능의 산물”임을 강조한다(Friedman 2002, 3-4).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주요 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또한 사적 자유의 보장이 촉진하는 경제적 합리성, 분업의 효율성이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합치되는 가치라고 주장했다(Hayek 1990).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민영화, 각종 규제완화,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를 단일한 지구적 규모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사상적 원리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민간 영역인 시장이 정부의 개입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경제적 관념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근본원리가 된 것이다(Brown 2004, 88).

4. 배타적 통치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회귀

자유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민주주의는 급진화되어 배타적 통치개념으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 경향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격한 대중운동과 이에 편승하는 선동적 정치인(demagogue)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배타적 통치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 되고 있다.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자임하는 포퓰리즘의 양상은 독일의 난민수용 반대 집회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2014년 시리아 내전 발발으로 발생한 대량의 난민들이 독일로 유입되는, 이른바 '난민 위기' 상황에서, "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 인들", 약칭 페기다(PEGIDA)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독일 시민들의 난민수용 반대집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우리가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 구호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원리가 아닌, 국적을 소유한 국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배타적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제도화된 기성의 정치가 시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대의(代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에



독일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전개된 시위 구호 '우리가 국민이다' (출처: John Macdougall/AFP연합뉴스)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Vorl snder et al. 2015, 53-63; 2016, 64-8).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배타적 통치개념으로 회귀하며 급진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시민들의 주민투표, 즉 직접적 민의(民意) 표출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투표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EU 탈퇴에 표를 던진 주요 계층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과 노년층, 평균 이하의 저임금 생활자들로 나타났다.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의 심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이를 취약 계층으로 하여금 유럽통합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다(Becker et al. 2017; Colantone et al. 2018). 같은 해인 2016년 11월 8일, 대서양 건너편인 미국에서 시행된 대선 투표 결과 역시 배타적 통치개념으로 회귀한 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도권 정치인, 기성 미디어들에게 트럼프(Donald Trump) 후보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시대착오적 남성우월주의, 고립주의적 미국 우월주의를 지닌 부적절한 인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세계화와 자유화를 신봉하는 “무능력한 정치인들, 부정직한 로비스트들, 무모한 월스트리트 투기꾼들, 가짜 미디어, 무능한 관료들, 오만한 지식인들, 미국을 착취하는 외세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리버럴들”에 의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세계화와 금융자본의 지배에 좌절하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원할 지도자로 등장했던 것이다(Norris et al. 2019, 67).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배타적 통치개념으로 민주주의가 회귀하는 상황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주의와의 융합 이후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과 자유, 평등은 물론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난민에 대한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에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은 보편적 인권의 인정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간이 아닌 국민(demos)이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 즉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통치(kratos) 개념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렇게 자유주의와 결별한 민주주의는 배타적 권력개념으로 급진화하며,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의회는 “의견의 아고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원리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한다. 포퓰리즘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다양성에 기반한 제도적 논의 과정이다(Urbinati 2017, 576-577). 주권자 인민의 의지는,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복수의 정당들과 그에 소속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는 대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주의, 정당정치를 거부하는 포퓰리즘은 통합된 대중들의 지지에 의해 선택된 국가수반 1인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기득권 세력들이 복잡한 토론과 합의, 감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정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차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rbinati 2019, 119).

민주주의의 급진적 경향은, 물론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속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 개인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가치들과는 무관한 인민(Demos)들의 통치 및 지배 개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내재한 배타적 통치의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장-자끄 루소의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 개념이라 할 수 있다(Rousseau 1796, 69). 18세기의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근대 민주주의는 구질서(Ancien Régime)에 대항하여 인민주권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타적 통치로서의 측면을 포함하게 되었다(Talmon 1966, 1-6).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 인민의 지배가 절대적인 당위성을 지닌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극단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포퓰리즘 역시 반-민주주의적 요소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인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부터 파생되었다(Mudde 2016, 303). 즉,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정치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얀-베르너 물러(Jan-Werner Müller)는 민주주의 개념이 지닌 이러한 내적 모순이 단일한 주권자 “인민(the people)”을 찾으려는 시도로부터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할 때, 권력의 주체가 되는 인민을 정의(定義)내리는 것은 핵심적 사안이 된다. 그러나 물러에 따르면, 루소에서 로베스피에르를 거쳐 슈미트까지 권력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는 주권자 인민이라는 “허상(illusion)”을 추구한 것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고정된 시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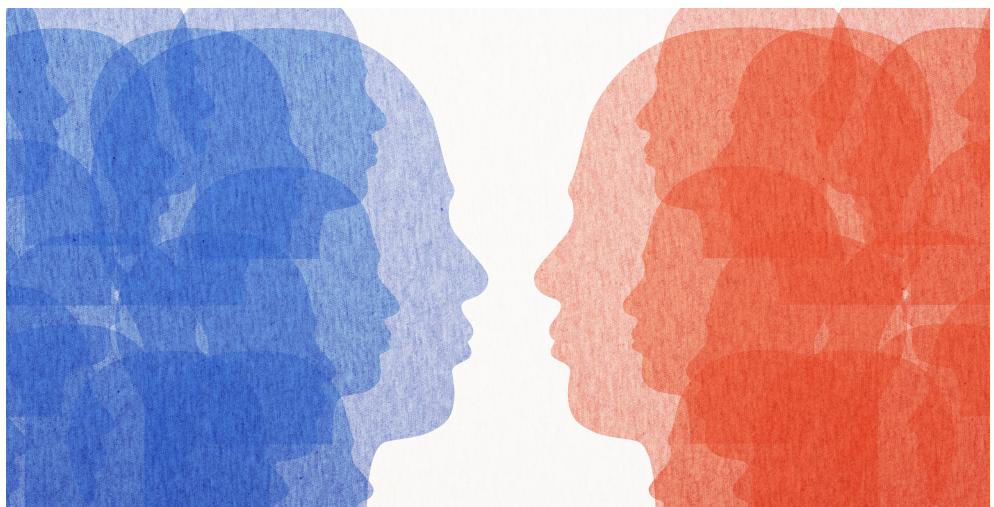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한 인민집단으로 단순화할 수도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정치공동체에서 주권자 인민이 누구인지, 인민의 의지는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의지는 물론 시민 집단 자체도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이다(Müller 2016, 28-29).

5. 한국정치에의 함의

오늘날 한국 정치는 극단적 양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단지 의견 차이의 확대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 내부의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적대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양극화에 의한 사회 갈등과 분열 양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한 결과,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보다 부유하고 발전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진보적 과정,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진보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는 이들을 만들어낸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사양산업 종사자나 노년층, 저소득 계층 등은, 세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된다. 사회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좌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은 정치적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100년 전에는 식민지 상태였었고, 이후에는 대규모 전쟁까지 겪었음에도,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결과,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는 세대별로 다른 시대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현재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로부터 세대간 격차는 물론,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다양한 문화적 갈등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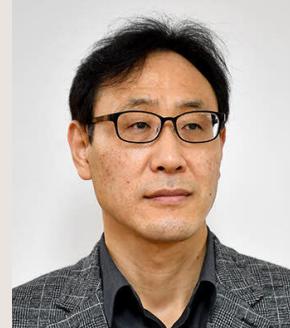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 가치관들을 상호 존중하며 인정해야만 한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방이라고 해서, ‘자유의 적’ 또는 ‘민주주의의 배신자’와 같은 과격한 비난을 사용한다면, 정치적 소통과 타협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는 소외된 사람들로 파편화되었다. 소외된 집단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 제도에 의해 수렴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급진적 정치 담론이나 감정적 동원에 더 쉽게 노출된다. 그러므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에 뒤쳐진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이들, 부도덕한 자들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좌절감과 불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당성이 단지 다수결이나 법적 합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정치 과정에서 존엄한 주체로 대우받는다는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정치나 정치권력은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는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마오쩌둥의 말이 대표적이다. 물론 정치에는 폭력의 요소가 존재한다. 군대와 경찰 같이,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폭력이 필요한 것처럼, 폭력은 정치 공동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폭력만으로 정치가 성립할 수는 없다. 옛날 한고조 유방에게 신하였던 육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폭력으로 나라를 차지할 수는 있어도, 폭력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진리였다. 하물며,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더욱 폭력이 아닌,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가 중요하다. 독일의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얘기한 바 있지만, 헤르만 헬러라는 법학자는 슈미트를 비판하면서,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여기게 되면, 정치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는 전쟁터가 아니고, 다른 정당과 그 지지자들은 적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 다를 뿐, 우리와 동일한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28민주운동 정신과 현실 정치



안도현 (영남대학교 사회학 박사)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이 위기다. 때아닌 불법 계엄으로 현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둘러싸고 사회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 정책으로 국제 질서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난제가 쌓여 있는 형국이다.

1960년 2월 28일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에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미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의감으로 주저 없이 일어섰던 그 날의 혁신적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다면, 당면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명확히 하기 위해 4월 혁명기에 발행된 2·28민주운동 참여 고등학교의 교우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4월 혁명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시기인 만큼 그 날의 정신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개교의 교우지만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 참고한 교우지는 경북고의 『경매』 7호, 대구고의 『달구』 1호, 대구상고의 『상흔』 7호, 경북사대부고의 『군성』 8호이다(발행 순서대로 나열함). 그리고 2·28민주운동의 정신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시도로 현실 정치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주제를 2·28민주운동의 정신에 기초해서 논의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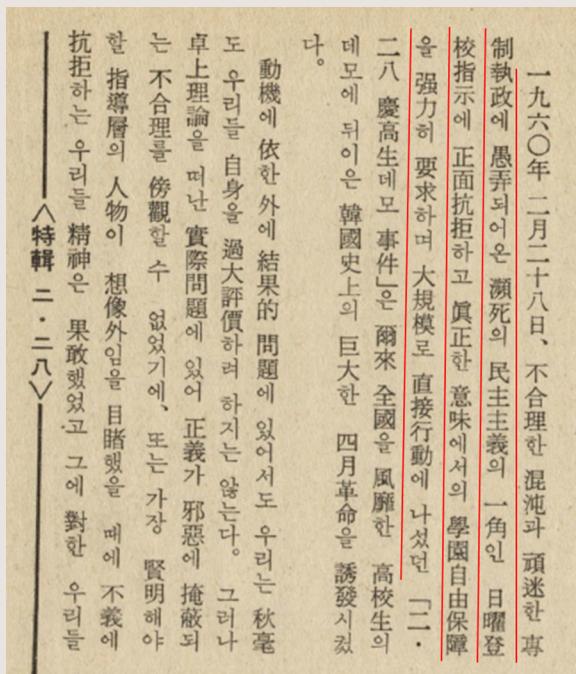
1. 경북고『경맥』제7호
2. 대구고『달구』제1호
3. 대구상고『상훈』제7호
4. 경북사대부고『군성』제8호



2. 2·28민주운동의 정신

1) 민주주의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당시의 상황을 민주주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이 억압당하고 있는 독재정치로 인식했다. 최용호(『군성』8호: 14)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 어떤 정치적 자유도 허용되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독재의 시궁창에서 국민의 입은 틀어 막혔고, 국민의 귀는 땀질 되었고, 국민의 손발은 여지없이 묶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이대우(『경맥』7호: 35·37)는 “더욱이 세기에 보기 드문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국민은 입과 귀를 틀어막힌 채 보안법이라는 법선(法線)에 꽁꽁 묶여 있었다”라며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일부 특권층을 위한 여당의, 여당을 위한, 여당의 전매특허적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제열(『상훈』7호: 193)은 4월 혁명은 “흙 속에 깊이 파묻힌 민주주의의 씨앗이 발아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경맥 7호(1960: 41)

경맥 편집부, 2·28 경과 상보

이처럼 민주주의 의식이 확고했던 학생들은 2·28민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북고교우지 편집부(『경매』 7호: 41)에 따르면, 학생들은 “1960년 2월 28일, 불합리한 혼돈과 완미(頑迷)한 전제 집정에 우롱 되어온 빈사(瀕死)의 민주주의의 일각(一角)인 일요 등교지시에 정면 항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원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규모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손진홍(『달구』 1호: 99)은 2·28민주운동을 모의했던 2월 27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성한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을 구호로 정해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상징화했다.

2) 민족주의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민족주의 의식이 확고했다. 그들에게 민족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었다. 김달이(『상훈』 7호: 38)는 농촌 계몽 활동 후기에서 “지난날의 36년 동안 왜놈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내 조국 강산을 짓밟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분함과 답답한 마음 얹누를 길 없었다”라며 민족 감정을 드러냈다. 또 정기수(『군성』 8호: 160)는 부석사 기행문에서 “내 조국을 두루 방문하며 옛 조상들이 남긴 유적을 더듬는 것도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 생각하니 양분된 조국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라며 부석사 기행의 민족적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김영배(『군성』 8호: 173)는 당시 우리 사회 일부에서 나타났던 사대주의에 대해 “내 집이 초라하다고서 남의 집 부에만 눈이

간다면 그것은 다된 집구석이 아닐 수 없다”라며 ‘망국병’으로 비판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민족주의 의식은 2·28민주운동의 동력이었다. 손진홍(『달구』 1호: 102)은 2·28민주운동을 모의한 2월 27일 밤에 “우리 네 사람만 희생이 되면 그만이고, 우리들의 빛나는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진로는 맑고도 밝게 동이 틀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자발적 희생으로 민족의 앞날을 밝히려는 강한 민족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대우(『경맥』 7호: 38)는 2·28민주운동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고등학생들의 청신한 가슴 속엔 한 가닥 조국을 위해 싸우려는 투지와 눈물겨운 민족의식을 캄캄 솟는 젊은 피와 더불어 고이고이 간직한 채 불의에 대한 무언의 반항 의사가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3) 정의감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정의감으로 불의에 맞섰다. 이대우(『경맥』 7호: 35)는 “우리 경고 맹우들이 아리따운 청춘을 성스러운 정의의 제단에 초개같이 바칠 비장한 죽음의 각오를 하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고 교우지 편집부(『경맥』 7호: 41)는 “정의가 사악에 엄폐되는 불합리를 방관할 수 없었기에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정신은 과감했었고 행동은 용맹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손진홍(『달구』 1호: 106)은 “욕되게 살기보다 차라리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이 뜻뜻하지 않은가?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은 저희의 순진한 감정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김용만(『경맥』 7호: 191)도 “짧은 인생에 부정을 저질러 남의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조금도 없다. 항상 정의에 살고 불의에 용감히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철칙”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학생들은 정의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극두(『군성』 8호: 35)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했다. “역사상 정의의 패배란 찾아보기 힘들며 비록 그것이 실패의 일단락을 지웠다 하더라도 드디어는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라고 인식한 박현구(『상흔』 7호: 45)는 불의한 “권력 가의 가슴팍에 정의의 칼날을 꽂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관희(『군성』 8호: 87)와 양제열(『상흔』 7호: 194)은 공동체 전체와 대의를 위한 자기희생을 정의의 핵심 가치로 인식했다. 그리고 정소성(『군성』 8호: 40)은 ‘힘이 약한 정의가 불의로 몰리고 힘이 강한 불의가 정의라고 우겨대는 것이 기성세대의 현실’이라며, 모든 학생이 “진실하고 정의로워질 임무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4) 혁신성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혁신적이었다. 특히, 냉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장극두(『군성』 8호: 35)는 1959년 성공한 쿠바공산혁명에 대해 냉전의식

보다는 국민주권의 실용주의에 기초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혁명의 성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든 쿠바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그들 국민이 원하는 목적에 일보라도 가까워져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체제에 대한 거리낌보다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국가를 만든 근본 목적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복수(『군성』 8호: 27)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로 남북통일방안의 논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위험시하고 흥계니, 책략이니 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짓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라도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여 정당하다면 취사선택하는 정도의 관용성은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혁신성은 한국전쟁 관련 소설에서 더 뚜렷했다. 안삼환(『경맥』 7호: 212)은 부역자 처벌에 대해 기존의 반공주의적인 시각과는 다른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부역자로 찍혀 재판도 없이 죽은 주인공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 “노소의 산골 부녀자들의 절규 속에 인류사상 다시 없을 학살은 시작되었다”라고 묘사했다. 또 변세화(『군성』 8호: 198-204)는 한국전쟁에서 다친 제대 군인의 끔찍한 삶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폭로했다. 심지어 구천길(『군성』 8호: 210-211)은 무기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미 술한 짚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총은 역적”이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3. 2·28민주운동 정신과 현실 정치

1) 민주주의와 계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그 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계엄이었다. 그 불법성은 너무나 명백해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77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것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할 뿐이다. 국회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2·3 계엄 포고령에는 계엄 선포의 이유를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이라고 밝혀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하여, 계엄 아래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과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 심지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불법 계엄이 분명하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일어섰던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한다면,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여야 할까? 무엇

보다도 12·3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계엄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한 불법 계엄으로써 헌법과 법률로서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불법 계엄의 즉각 해제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엄격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하는 그 어떠한 언행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 민족주의와 외교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실의 중심의 자주 외교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정책에도 우리는 실의 중심의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나라에 관세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편 관세(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함), 상호 관세(실효 관세율의 절반으로 보편 관세와 중복 적용 가능함), 특별 관세(특정 품목 및 국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함) 등을 내세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조율하겠지만 굴복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EU집행위원장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그런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행 시절 <파이낸셜 타임>지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맞대응하지 않겠다”, “우리의 성장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또 이미 협상이 끝난 2026년 ~2030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부담의 우려를 낳았다.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모를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족주의를 주요한 정신으로 계승하고 있는 2·28민주운동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자주적 태도로서 2·28민주운동의 민족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자세일 것이다.

3) 정의감과 차별

사회적 차별은 사회 구성원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대상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권리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인, 이주민, 저학력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도 다양한 소수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성차별, 노동자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노인, 청년) 차별, 성소수자 차별, 지역 차별, 이주민 차별, 학벌 차별 등

다양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성 손배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인 정의감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이다. 따라서 인간을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태도는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선 2·28민주운동의 정의로운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에 저항하고,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모든 학생이 정의로워야 할 임무가 있다고 믿었던 2·28민주운동 참여 학생들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한다면,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문제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여성, 장애인,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에는 더 정의로운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4) 혁신성과 반공

냉전 시대는 끝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공산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일단락되었다. 반공주의는 철 지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공격하던 '빨갱이'의 이념적 근거였고, 대북 정서를 이용해 권력을 연장하는 도구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반공주의의 한국식 변종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선거에 개입했고, 국내의 반체제세력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부정선거음모론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투표자를 중국인이라며 쫓아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등 겁박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만 120여 건의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부정 선거음모론은 낡은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중국 혐오일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이미 2·28민주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낡은 반공주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했다. 쿠바에서 발생한 공산혁명도 국민주권의 실용주의에 기초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북한의 통일 주장도 정당하다면 취사선택하자는 관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 전쟁 부역자 처벌에 대해서는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21세기도 한참 지난 2025년 철 지난 반공주의에 기생하는 중국 혐오와 부정선거음모론은 너무 고루한 생각이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인 혁신성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다.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와 절연하는 것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길일 것이다.

4. 나오며

2·28민주운동 정신은 대구의 2대 시민 정신 가운데 하나다. 해마다 대구 시민주간에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자랑임이 분명하다. 또 암울한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시민들을 일으켜 세운 그 날의 학생들은 오래도록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구시민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2·28민주운동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 현정질서를 앞장서 지켜냈는가?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정치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비판적이었는가? 한국사회의 수많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시대착오적 반공주의에 기초한 부정선거음모론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가? 대답이 궁색할 뿐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의 저자 프란츠 파농의 말이다. 2·28민주운동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의 무기가 되려면 대구시민부터 결심해야 하지 않을까? 2·28 민주운동의 정신인 민주주의, 민족주의, 정의감, 혁신성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독재와 매국과 불의와 구태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던 그 날의 학생들처럼.





네 번의 여름

배우진

타일은 조명과 멀리 있다
타일은 어둠과 투병 중이다
타일은 굴레를 깨려 한다
타일은 사과하는 식으로 멈춰 있다
타일이 요의를 느낄 때 숨소리가 들린다
타일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타일은 사방을 사랑한다
타일은 수다를 사랑한다
타일은 흑백영화를 사랑한다
타일은 계절을 지나칠 수 없다
타일은 전진한다
타일은 주말을 지나칠 수 없다
타일은 그리움을 안다
타일은 종종 타락할 것만 같았다
타일은 타일을 모른다
타일은 그날 밤을, 그 모양으로, 추락한다
타일은 가장 사나운 짐승으로 이해받으려 한다
타일은 가로막힌다
타일의 등이 젓는다
타일은 그날 밤을 닮았다
타일은 대화를 마치고 찾아오는 침묵을 배치한다
타일은 박자에 묶여 있다



봄을 피운 나무

정 시 식

홍매가 핀 달성공원에는
서침나무가 대구를 지키고 있다

삼한시대 달구벌 성터로
고려 중엽부터 달성서씨 세거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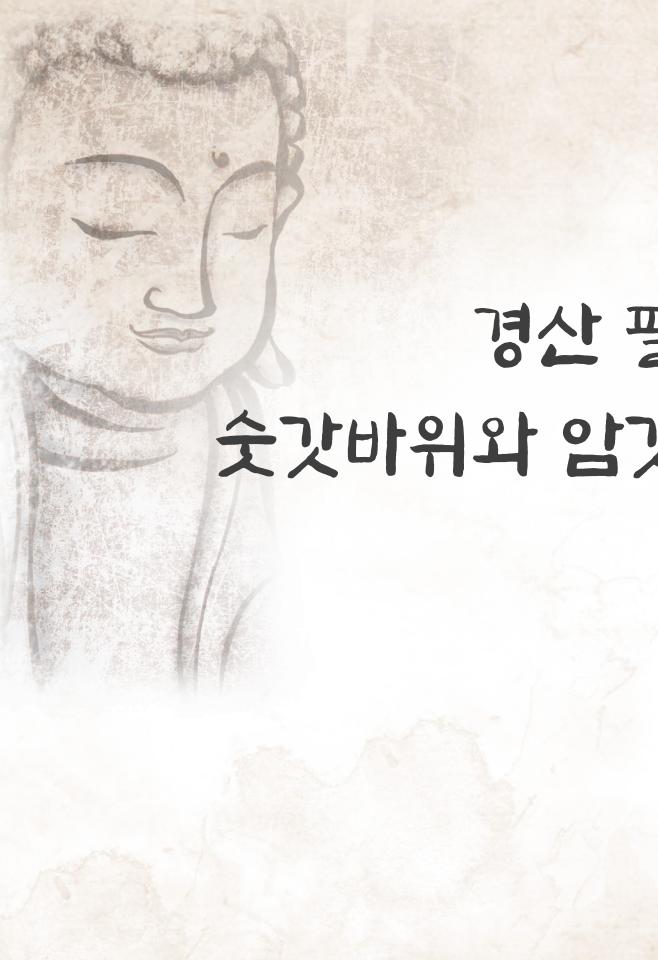
세종 때 서침徐沈이 국가에 땅을 헌납하자
왕이 달성 백성에게 환곡이자 감면했다

서침의 사랑에 감읍한 유림
달구벌 성터에 회화나무 심고
서침나무라 불렀다

국채보상운동을 지켜보고
2·28 학생의거 응원하며
달구벌을 아우르고 있다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35(달성공원 내)
- 시작노트 : 대구의 봄은 달성공원 홍매로부터 시작한다. 홍매 옆에는 봄의 끝 무렵이나 되어야 잎을 피우는 봄의 늦동이인 300년생 회화나무가 있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 서침의 정신을 기리고자 구암서원을 세우고 회화나무를 심어 서침나무라 불렀다.

-
- 서침(徐沈) : 1424년(세종 9) 세거지인 달성을 국가에 헌납하고 보상책을 논의하였다. 서침은 일체의 보상을 사양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납부하는 환곡의 이자를 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종은 이를 허락하고 특별히 영산지(현 영산시장)와 신지(현 서문시장) 일대의 조세 수취권과 더불어 남산고역(전 남산병원)과 동산(東山) 일대의 땅을 하사했다.



경산 팔공산 숯갓바위와 암갓바위



김약수
(수필가·경산학연구원장)

팔공산 남동쪽 산봉우리 관봉(冠峰)은 거대한 불상 머리 위에 갓을 쓰고 있어서 불여진 산봉우리 이름이다. 해발 850미터 관봉에 갓을 쓴 채 앉아 있는 불상이 갓을 쓰고 있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 불상을 ‘갓바위’, 또는 ‘갓바위 부처’라고 부르고 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때 관봉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을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1960년 초 신라오악학술조사단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1965년 보물 제431호 ‘관봉 석조여래좌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慶山八公山冠峰石造如來坐像)’으로 문화

유산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설(俗說)로 인해 전국에서 갖가지 사정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해에 갓바위 부처를 찾는 사람이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경산을 상징 하는 세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 13일 제1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학 포럼」에서 대구가톨릭대 J 교수가 발표한 <경산의 역사와 문화자원>의 ‘불굴사석조입불상(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제401호)’ 설명문에



“선본사 갓바위를 숫갓바위, 불굴사에 있는 본 갓바위를 암갓바위로 여겨 일대 동네 지명도 음양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품는 선본사 갓바위와 음의 기운을 품는 불굴사의 석조입불상에 같은 날 찾아가 기도를 드리면 소원 성취한다는 설 이야기도 전해 온다.”라고 쓰여 있다.

부처에 어디 숫갓바위(남자 부처) 암갓바위(여자 부처)가 있단 말인가! 어떤 부당한 의도성이 있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여 모독하고 불교를 폐훼하는 아주 잘못된 발상임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쓰면서 불심(佛心)이 깊은 한 경산 향토사가를 통해 알아보니, 2010년대 초반 경산 향토사가 K가 주도적으로 주지 스님과 상의하여 참배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꾸며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그 경산 향토사가가 주장하고 사찰의 주지 스님이 언급하니 대학교수가 이를 믿고 그대로 발표문에 인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선본사 관할 관봉 갓바위(숯갓바위)와 불굴사석조입불상(암갓바위)에게 한날 찾아가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불굴사석조입불상의 머리에 갓이 없는데도 ‘암갓바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암갓바위와 동네 이름 ‘음양리(陰陽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암갓바위로 인해 마을 이름이 ‘음양리’가 되었다는 엉뚱한 착상(着想)이 기발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배객과 탐방객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작태가



경천동지할 일이다.

참배객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지 스님과 함께 일을 도모한 그 향토사가는 여전히 유사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지 스님은 현재 어느 본사(本寺)의 주지로 재임하고 있다고 한다. 갓바위 부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향토사가는 이런 사실무근의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 소위 사이비 향토사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향토사가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왜곡 날조한 것이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왜곡하고 날조한 내용을 계속 저지르는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왜곡과 날조를 재생산시켜 지식 및 정보의 혼란을 낳게 하기에 나쁜 범죄행위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행하는 짓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탐욕이 작용하여 잘못된 일을 이어서 저지르고 있기에 중증의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부처님 제자인 스님이 자신의 정당치 못한 이기심에 마음이 흐트러져 향토사가의 참배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럴싸한 발상에 현혹되어 부처님을 욕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J 교수의 “솟갓바위와 암갓바위에게 한낱 기도를 드리면 소원 성취한다는 설 이야기도 전해 온다.”라고 한 언급 자체에서 이미 스토리텔링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어처구니없고 터무니 없는 거짓이 스토리텔링이란 미명으로 널리 퍼질 일임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걱정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팔공산 불교 유적의 상징으로 수많은 참배객이 찾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를 솟갓바위, 불굴사석조입불상을 암갓바위로 하여 참배대상의 불상으로 엮어서, 하루에 이 두 부처님에게 참배하면 기도의 효험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럴싸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어디까지나 사실(Fact)에 근거해야 함에도 재미와 흥미 쪽으로 윤색하는 추세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소위 솟갓바위와 암갓바위 명칭 자체가 왜곡이자 날조이다.

왜곡(歪曲)과 날조(捏造)의 사전적 뜻은 각각 "사실과 다르게 곱새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이다.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 자들의 변명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토리텔링은 story(스토리)+telling(텔링)의 합성어로 '이야기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여야 하며 왜곡 또는 날조해서는 안 된다. 스토리텔링은 없는 것을 거짓으로 왜곡·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근거로 전달 방법을 재미나게 표현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내거나, 혹은 재미를 담아 흥미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왜곡과 날조가 스토리텔링을 빙자해서 일어나고 있다.

왜곡과 날조는 또 다른 왜곡과 날조를 낳고 조장하고, 또한 재생산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곡되고 날조인 줄 몰랐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편과 과시욕에서 의도적인 경우가 적잖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부처가 어디 남자 부처 여자 부처가 있단 말인가! 무지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불교를 펌훼 모독하는 아주 못된 발상임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사이비 향토사가의 스토리텔링 빙자와 자기 과시에서 벌어지는 왜곡과 날조는 상상을 초월하여 유구무언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경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왜곡과 날조에서 비롯한 웃지 못할 허구의 한 예를 들면, 조선 인조 22년(1644)에 창건된 경흥사(慶興寺)의 주존불(보물 제1750호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의 「경흥사 불상 조성기」에 "여러 승려가 영규

(靈圭)로 하여금 불상을 조성하는 화주로 삼으니"라는 기록이 있는데, 영규 스님을 영규대사라고 왜곡함으로써 아직껏 엄청난 역사 날조의 거짓이 이어지고 있다.

경흥사 불상 조성기에 적힌 영규 스님을 임진왜란 때 충청도의 승병장으로서 왜군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금산(錦山) 전투에서 전사한 영규대사(靈圭大師, ?~1592)와 같은 스님으로 알고, 1990년 6월에 세운 「경흥사 사적비」에 "서산대사·영규대사·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경흥사에 머물면서 의병 7·8백 명을 훈련 시킨 승병훈련장의 역할을 한 사찰"이라고 새긴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역사 왜곡이면서 날조이다. 임진왜란은 경흥사 창건 52년 전의 전란이기에 언급 자체가 왜곡이요 날조로서 역사의 허구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들은 비문의 내용대로 "임진왜란 때 서산 대사·영규대사·사명대사가 경흥사에 머물면서 의병 7·8백 명을 훈련 시킨 승병훈련장의 호국사찰"이라고 경흥사를 찾는 탐방객과 참배객에게 역사의 허구를 신명으로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서글픈 일이 아닌가!

경산 지역 한 향토사가가 그동안 벌여놓은 왜곡과 날조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인쇄물과 SNS는 인쇄물과 SNS로 왜곡과 날조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비문은 비석 그 자체를 분쇄하여 땅에 매몰하고 바른 내용의 비를 새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왜곡과 날조는 많은 사람에게 계속 왜곡 날조를 하게 만들고 어리석음과 혼란과 고통과 고비용을 낳게 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21학번 김채훈

대한민국 재가동, 6개월간 정지된 대한민국 리모델링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6개월 전과 똑같은 상태이다. 전례 없는 연속 탄핵,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으로 모든 것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토론해야 했던 문제들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내란’과 ‘범죄자’라는 슬로건만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이제 재가동을 시작할 때다. 오래 멈춰 있던 만큼 기름칠이 필요한 곳도 많을 것이다. 긴 시간의 외교 공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어난 경제 공백,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까지 작동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당면과제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작동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과감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는 급격한 정책 변화나 강력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잊어야 한다. 눈부시게 발전한 유튜브 시장과 AI 혁명의 영향으로, 지금의 우리는 ‘지도자의 결단’을 마냥 따라가는 사회가 아니다. 수많은 의심과 정보가 가득한 파도는 전통적인 보스 리더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비상계엄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나”라는 말은 결국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굶주림과 폭력 위협을 받지 않았던 세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미래 세대다. 그런 미래 세대가 “오죽하면 폭력을 휘둘렀겠나”라는 논지에 납득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중심에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있다. 폭력, 결단, 보스 리더십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미래 세대를 대하기 위해서는 결단의 의식에서 벗어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보다 문화 개혁, 우리에게는 ‘낭만’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의 영향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가 선거의 주 토pic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내각제,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도 “정말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다.

그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 방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비상대권(非常大權)’은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비상계엄을 막았던 것은 민주화 정신이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라는 심리적 데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 입법 독재, 비상계엄, 전례를 무너뜨리는 야합 정치, 후보를 강제로 바꾸는 밀실 정치까지, 오늘날 정치 문제의 원인은 심리적 데드라인과 정치의식 부재에 있다.

제도 개혁은 또 다른 종류의 억압일 뿐이다. 의식이 바뀌지 않은 법제화는 구속력만 강화할 뿐이다. 형태에 집착하는 법치다. 서로를 납득시키지 못한 제도 개혁은 서로를 형해화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각자를 구속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악마의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을 과연 제도 개혁만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 해봐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낭만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제도적 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못한 정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반대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 반대 토론이 열리면 의사봉을 잠시 멈추는 의식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가 아닌 ‘경영자’, 다음 시대에 필요한 가치

“키가 갑자기 크면 무릎이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국가도 그렇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급격히 성장한 국가는 그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는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취임사에서도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진정한 통합이란 무엇일까? 통합을 위해 결단하는 대통령일까, 통합을 위해 설득하는 대통령일까? 아마도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경영자이자 국정 운영자다. 좌파와 우파, 친북과 반공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각자의 꿈과 각자의 레일에서 달리는 사회, 그 사회로 가는 길은 너무도 멀고 긴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낭만은 곧 낭비’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정치에도 낭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생긴 빈틈만큼 다음 세대가 성장할 것이다. 불안감과 책임감이 자가 증식 중인 관료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지방분권의 열쇠도, 경제 발전의 열쇠도 모두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 강박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자’와 ‘경영자’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이고 의식의 차이다. 둘 다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다만 지도자는 눈앞을 보고, 경영자는 시스템을 본다. “실용, 통합, 양보”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한 발 뒤로 물러나 시스템을 봐야 한다.

‘한다면 하는 이재명’은 잊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한강의 기적’ 역시 잊자. ‘사이다 이재명’은 국민의 절반에게 미움 받는 비호감 후보 시절에 쓸모가 있었다. 대통령 이재명은 다르다. ‘고구마 이재명’도 각오해야 한다.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 있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으로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음 시대는 기억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영자’가 되어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해주기를 바란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3

이란 편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페르시아 제국 황제들의 무덤과
벽화가 새겨져 있는 나그쉐 로스탐

박순국
실크로드포럼 지도교수·전 매일신문 도쿄특파원



실크로드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고행을 자초하는 구도자의 길이다. 그곳은 가도 가도 사막뿐. 그러나 21세기 실크로드에는 문명의 혜택으로 낙타 대신 말끔한 포장도로가 놓이고 자동차가 달린다. 그 길 옆 모래 언덕 속에는 명멸한 수많은 문명의 흔적과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선인들이 미라로 잠들어 있다. 긴 시간을 들여 척박한 모래땅을 답사하는 것은 마음속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조금은 쉬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알기 위해서이다. 실크로드 탐사를 3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일차연도에는 중국 시안에서 카슈카르까지 주파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실크로드 답사는 이차연도로 완료했다. 세 번째인 이번 여정은 이란을 거칠 것이다. 옛날 비단을 주 교역품으로 대륙을 오가며 문명을 전달한 대상들의 길을 따라간다. 특히 이란에서는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찾아본다. 이제 남은 절반은 이란과 튀르키예를 통해 실크로드의 종점이자 출발점인 이스탄불까지 가는 길이다. 옛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약 1만3천 킬로를 종주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사산조의 황제 앞에 생포된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 무릎을 꿇고 있는 벽화가 새겨져 있다.



수직절벽 황제들의 무덤

광대한 사막을 달리는 도중 갑자기 거대한 바위산이 나타난다. 수직절벽이다. 길을 가로막은 높이 150미터의 암벽 앞에 서니 뿐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기를 누른다. 이곳은 긴 역사를 가진 유적지이다.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고도 시라즈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다. 페르시아 제국 황제들의 바위 무덤과 암벽 벽화가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진 곳이다. 이름하여 ‘나그쉐 로스탐’. 이란 어로 나그쉐는 조각이나 회화를 뜻하고 로스탐은 전설 속 한 영웅의 이름이다.

깍아 지른 것 같은 바위 절벽 중간에는 페르시아 아키메네스 시대 네 황제들의 무덤이 옆으로 나란히 조성돼있다. 절벽에 굴을 파서 만든 이 무덤 아래에는 사산제국 시대의 황제들이 자신의 칙적을 자랑하는 많은 벽화를 새겨놓아 눈길을 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리우스1세의 무덤 아래에 있는 페르시아 사산조 시대의 벽화였다. 가장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이 벽화에는 서기 26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샤푸르1세가 말을 타고 내려다보고 생포된 로마 황제 발레리안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천하무적이었던 로마군이 패배하고 로마황제가 무릎을 꿇었으니 샤푸르1세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사산제국 영토 곳곳에 같은 내용의 벽화를 새기도록 했다. 승자에게는 영광이고 패자에게는 굴욕인 이 장면을 바위에 새겨 대대손손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동서양 문명 간의 최초의 충돌이라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었다. 그러나 다리우스 1세 때인 BC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에게 패배했던 굴욕이 있었다. 위풍당당한 승리의

모습과 비참한 패배의 모습을 바위산 같은 초대형 광고판에 새겨놓아도 여전히 전쟁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처음 이 구조물을 만들 때 바위산 정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작업을 했거나 흙을 높이 쌓아올린 지지대 위에서 조각을 하면서 점차 아래로 파내려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페르시아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성립한 황제의 암벽 무덤도 특이하지만 뒤이은 황제들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벽화는 더욱 생동감 있게 역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벽화 중에 전투장면을 보면 고구려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말 탄 병사들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곳 나그쉐 로스탐은 황제의 무덤만이 아니라 다양한 벽화들 속에 그 시대의 문명이 함축되어 있다. 암벽에 나타난 모습은 실크로드의 바람을 타고 멀리 대륙의 동단에 있는 한반도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페르세폴리스

2500년 전, 태양 아래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다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아직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신비한 유적지이다.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페르세폴리스에 남아 있는 지금의 흔적만으로도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유적이라고 말한다. 1931년부터 시카고대학의 발굴조사가



시작됐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반열에 올랐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쪽에 있는 시라즈시에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다.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기원전 521~486 재위)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확장하는 대제국을 구축했다.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는 활발한 건축 사업을 벌였으며 제국 내 각 지역의 최고 기술자를 총집결시키고 값비싼 수입 재료들을 사용해 페르세폴리스라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었다. 그 결과 약 12만8천 평방미터의 넓은 궁전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용도는 제국의 신년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사용됐다. 각 복속민족으로부터 공물을 받아들여 아케메네스조의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성역이었다고 한다.

매표소를 지나자 입구에 좌우 양쪽으로 놓인 계단을 오른다. 사람 얼굴에 날개 달린 짐승폼뚱이를 한 유익인면수신상(有翼人面獸身像)이 좌우에 나타난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세운 것으로 모든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만국의 문’이다. 서쪽 기둥에는 한 쌍의 황소가 동쪽기둥에는 한 쌍의 인면수신상이 마치 경비병처럼 조각되어 있다. 이들은 황소얼굴에 수염 난 사람의 얼굴 형체를 가진 ‘페르시아의 스팽크스’이다. 이 문을 통과하면 원편에 하늘을 나는 쌍두 독수리상이 노려보고 있다. 호마라고 부르며 고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시절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새이다. 왕의 머리나 어깨에 내려앉는다고 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우리의 봉황과 비슷한 이미지이다. 현재 이란 국영항공의 심볼 마크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지는 알현실로 들어간다. 이곳 충계 벽면에는 돈을새김으로 조각된 외국 사신들의 행렬 모습이 보인다.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은 거의 비슷한 자세를 하고 있다. 옷차림이나 손에 든 선물 등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신임을 알아볼 수 있다. 조공을 바치는 각 민족의 신체적 특징, 의상, 생활 풍속 등이 세세히 나타나 있다. 각각의 조각은 당시 페르시아 및 오리엔트 생활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벽면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문득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의 모습이 떠오른다. 경주 용강동 석실분에서 나온 문관상은 긴 턱수염과 얼굴 모습이 페르시아인의 풍모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이었다.

석벽 곳곳에 커다랗게 새겨놓은 동물투쟁도 역시 눈길을 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해 절대적 통치를 암시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그 절대 권력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330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세폴리스를 함락한 후 1만 마리의 당나귀와 5천 마리의 낙타로 창고에 있던 보물을 실어 갔다. 과거 아테네를 침입했던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신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복수로 불을 지르고 무참히 파괴했다는 것이다. 무릇 승자만의 역사가 안타까울 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적 보복에 아무런 죄 없는 문화만이 피해를 본다. 출구를 향해 발길을 돌려 다시 높은 계단위에 섰다. 먼 들판을 바라보니 녹음 속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상쾌하다. 다리우스 대왕도 자신이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대지를 이곳에서 바라보았을 것이다. 역사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수많은 조각과 유적을 보고 있으면 시공을 초월해 그 시대 그곳에 몸을 두고 있는 기분이 된다.



키로스 대왕의 영원한 무덤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직후, 키로스 대왕의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의 일화. 그는 키로스왕의 지석에 새겨진 글을 읽고 상의를 벗어 무덤에 덮어주며 머리 숙여 경배 했다. “그대가 오리라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며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정복자는 정복자를 알아보는지 시대를 초월한 영웅의 무덤 앞에 한참 동안 이 짚은 영웅은 서 있었다. 기원전 331년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 최초의 수도 파사르가데에서의 일이었다.

시라즈 인근에 있는 페르세폴리스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황량한 별판이 나타나고 파사르가데에 도착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곧바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 대왕의 무덤이다. 사방이 확 트인 깊은 평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서 멀리서 보면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집트의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벽돌을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그 위에 그리스 이오니아 양식의 석관을 올려다 놓았다. 지붕은 또 다른 양식, 주춧돌은 수메르 양식을 따랐다. 무덤 하나에 키로스가 지배했던 각 지역의 문화가 모두 배어있다. 무덤의 재질은 주로 거대한 석회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2,6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오늘날 이 파사르가데 일대는 키로스의 무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적이 폐허로 변해있다. 약간의 석조유물 흔적과 빙터만 남아 있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지는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와 페르시아 초기의 건축술을 엿볼 수 있다는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2004년



시신을 새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장이 치러지는 동안 유족들이 머물던 흙집에서 바라보는 침묵의 탑.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제국의 수도를 건설한 이 위대한 키로스 대왕은 누구인가. 그는 아케메네스조의 왕이 된 후 기원전 539년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페르시아를 세계제국으로 구축해 놓았다. 그는 유능한 전술가였으면서도 고결한 성품의 지배자였다는 명성을 후세에 남겼다. 한번은 바빌로니아를 공략하고 유다왕국을 점령했을 때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있던 유다인들을 해방시킨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키로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 사건에 대해 구약성서 '이사야서'에는 키로스를 고레스 왕으로 표기하고 목자이며 야훼께서 기름 부은 자로 찬양하는 내용도 있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크게 3번이나 정복되었는데 어느 시기에서도 이 묘는 파괴되지 않았다. 처음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존경해 허리를 굽혔고 두 번째로 아랍인이 공격했을 때는 위대한 솔로몬왕의 묘라고 생각하여 공격하지 않았다. 세 번째 몽골 침략 시에는 폭염을 싫어한 몽골군이 남부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왕조가 거듭되고 수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2,600년의 풍상을 견뎌온 것은 단단한 재질의 석회암이라는 이유만이었을까. 다민족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의 융화를 위해 관용과 포용을 실천한 이상적인 군주로 긴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높푸른 하늘아래 당당히 서있는 무덤과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본다. 위대한 키로스 대왕이 잠든 곳, 그 주위가 지금은 황량한 벽판이지만 당시에는 '파르가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왕의 정원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그곳에서 파라다이스라는 명칭도 유래했다고 한다. 조로아스터교 승려들이 조용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알렉산더를 수행해 이곳에 온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다.

침묵의 탑과 조로아스트교의 꺼지지 않는 불꽃

조장(鳥葬). 시신을 새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장례방식이다. 이 종교에서는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일단 죽으면 불결한 흉물로 변해 신성한 흙이나 물, 불과 접촉할 수 없으므로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았다. 결국 시신을 높은 곳에 두어 독수리와 같은 새가 먹게 해 육신이 없어지도록 했다. 죽은 자이니 말할 수 없고 침묵해야 하는 것 이어서 ‘침묵의 탑’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 같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680킬로 떨어져 있는 야즈드시를 찾았다. 검은 모래산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장지를 찾았다. 1930년대부터는 이곳에서 조장을 금지했고 조로아스터교 신자도 이슬람 교인과 마찬가지로 매장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침묵의 탑은 해발 50미터 정도의 바위산 위에 설치되어 있다. 정상에 올라보면 원형의 공간은 흙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무런 장식도 없다. 야즈드 시가지와 그 옆으로 펼쳐진 벌판이 한눈에 펼쳐진다. 하늘에서 날아온 새들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방법을 취했으므로 지붕이 없다.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에 들어섰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시신이 독수리에게 몸을 내놓고 누워있었을 평평한 바위에 지금은 아침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다. 화사한 그 빛은 살아있는 동안 인간들이 가졌던 욕망을 비웃는 듯하다. 산자들에게 종착역인 이곳은 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외로운 여행길의 출발역이었다.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편안함을 얻는다는 것, 죽음을 삶의 어두운 끝이 아니라 하나의 동력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텅 비어있는 원통형 장례식장은 파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으스스한 느낌과 함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탑을 둘러싼 담장 사이에 만들어진 조그만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샛노란 들꽃 한 송이가 웃는다. 침묵을 벗고 살아있는 일상으로 복귀한 느낌이다. 다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삶을 향해 죽음의 공간을 떠난다.

내친김에 조로아스터 유적 중에 신성한 불의 사원 ‘아테슈카데’를 찾기로 했다. 1,600년 동안 계속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찾는 곳이다. 신성한 불은 놋쇠로 만든 그릇에 담겨있고 투명한 유리관으로 덮여 보관하고 있다. 이 종교에서 불은 선신의 상징 중 하나로 불을 통해 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신도들은 불을 보면서 경전을 읽는



1,6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신성한 불꽃이
놋쇠로 만든 그릇에 담겨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의식과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 한참 동안 카메라를 통해 타오르는 불꽃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사진촬영을 했다. 유리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피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성스러운 불길을 바라보는 동안 그 자체가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소가 어디든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는 행위가 가진 아름다움은 세계 공통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 테헤란과 서울의 인연

이란을 떠나기 전 테헤란으로 돌아왔다. 은빛 만년설이 빛나는 해발 4천 미터 급의 알보르즈 산맥. 새하얀 연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남쪽 기슭에 약 7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제적 대도시가 둉지를 틀고 있다. 세계역사상 보기 드문 이슬람 혁명의 진원지로써 유명한 곳이다. 6세기 초 사파비 왕조 때 궁전과 정원을 만들고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낙타대상들의 숙소 '카라반 사라이'와 시장터를 건설함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로써 명성을 누려왔다. 석유수출에 의한 급속한 번영과 서방 일변도의 전제정치는 이슬람혁명의 원인이 되어 왕정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란은 지금도 전통과 현대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테헤란 거리로 나서보니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속으로 휙쓸려 들어간다. 세계 유명도시의 교통 혼잡도에 있어서 테헤란은 언제나 상위순위에 든다고 한다. 기름값이 싸기 때문인지 자동차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교류는 이미 페르시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수도 테헤란과의 역사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다. 먼저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시나메에는 통일신라와의 인연이 기록되어 있다.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1024년 현종 15년 고려 조정까지 찾아와 왕을 알현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다. 어쩌면 그 천 년 전의 인연이 이어져 오늘날에도 서울 강남구에 ‘테헤란로’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고 이 도로 근처에 ‘서울공원’도 있다. 여행기간 동안 많은 이란사람들이 자기와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태권도와 드라마 대장금, 주몽의 나라에서 온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란여행을 한 후에 유의 할 점을 알아본다. 나중에 미국을 여행하려 한다면 이전에 이란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전자 여행허가(ESTA)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별도 B관광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단순히 이란 방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미국여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제 테헤란을 벗어나 이란을 떠나려 한다. 오늘날의 테헤란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거움, 비참함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리와 시장을 걸으며 인파 속에 섞여 보고 버스에 올라 극심한 교통체증도 체험해 본다. 그 이유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며 굳세게 살아온 사람들의 질긴 생명력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일정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점이며 동로마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의 이스탄불이 있는 투르크에로 진입한다.



남평문씨 인홍세거지의 '三相미학'(하)



수백당 마루 밑에 누워 있는 문인석 한 쌍(원 안). 수봉 문영박 선생의 '겸양의 미덕' 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형물이다.



이몽일
경북환경연수원 객원교수·풍수학박사



어떤 터의 명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는 무엇일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방위도 아니다. 놀랍게도 ‘사람다움’이다. 산 사람을 위한 집터든 죽은 사람을 위한 묘터든 마찬가지다. ‘터 무늬는 집 무늬에 미치지 못하고[地相不如家相], 집 무늬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늬[착한 마음씨와 덕행]에 미치지 못한다[家相不如心相(德相)]’는 말이 있다. 좋은 터에 빼까뻔쩍한 집을 짓고 살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정이 도둑놈 심보라면 더 이상 그곳은 명당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울러 ‘악인은 명당에 묻혀도 그의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삼대에 걸쳐 착한 일을 많이 해야[積善] 명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좋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 진짜 명당[吉人住處是明堂]’인 셈이다. 청담 이중환도, 사색당쟁으로 반복과 질시가 난무했던 18세기 조선의 사회 분위기에 크게 낙담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 ‘땅이 아닌 땅[非地之地]’이 돼버렸다고 탄식 하며, 대저 사람이 ‘살 만한 마을’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인심’을 봐야 된다고 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天時不如地利],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地利不如人和]’는 옛 금언(金言)이 결코 혀튼소리가 아닌 것이다.

남평문씨 인홍세거지는 지상미(地相美)보다는 가상미(家相美)가, 가상미 보다는 사람들의 심상미(心相美)와 덕상미(德相美)가 더 돋보이는 터다. 길인들이 사는 곳이니 더 이상 명당성을 담보할 요소를 운운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 세거지에서 부자가 나오고 고위관료가 배출되자 온갖 명당 발복설(發福說)들이 고개를 들었다. 주산인 천수봉의 효험

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세거지 앞쪽으로 보이는 함박산이 ‘말 안장’ 형태의 귀격사(貴格砂)이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가문이 14대 조부 묘부터 실전된 묘소 하나 없이 모든 조상 묘를 온전히 잘 보존해 온 덕분이라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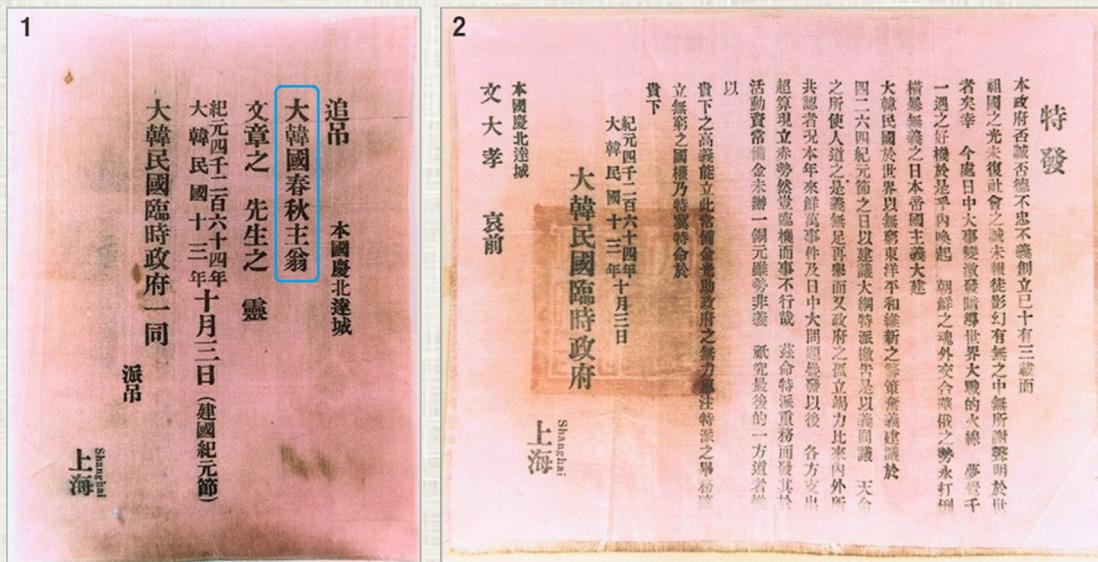
풍수 논리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논리가 바로 그 같은 명당 터 발복(發福) 논리다. 한 개인의 출세에 작용하는 요인이 어찌 풍수뿐이겠는가? 본인의 자질과 노력, 그를 둘러싼 혈연·학연·지연 같은 온갖 연줄, 가풍과 시대적 배경환경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세상 만사를 모두 음양오행론적으로 해석했던 조선조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지인무간(地人無間)의 발복 논리가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는 땅과 인간이 서로 떨어져 별도의 다른 논리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과학적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다.

만사의 길흉을 풍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몰고 갈수록 오히려 풍수는 미신으로 치부돼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인물풍수론의 본질은 어떤 사람의 잘 되고 못됨을 집터나 조상 묘터의 덕분이나 탓으로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행태(行態: 마음씨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달[吉人 여부의 판단 지표가 되는 좋은 심상과 덕행]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집터와 조상 묘터]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홍세거지 사람들이 성취한 복록은 터의 발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양지리학(geography)적 입지 이점을 잘 활용한 결과이다. 또한 그들의 성정 형성에는 자연 지형의 생김새보다는 가풍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인홍세거지에는 국내 최고의 문중도서관인 인수문고, 조상들이 남긴 광거당과 수백당 같은 자존감 높은 건축물, 송덕비와 추조문(追弔文) 같은 유품, 각종 현판 글귀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모든 공간요소들은 세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수자연에 놓지 않게 거주자들에게 자존감과 실존감을 심어주는 아주 강력한 환경심리학적 기제물들이다. 그런 장치물들 하나하나가 후손들에게 좋은 기운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세거지 안에서 함양된 높은 인간애(愛)와 장소에 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근마을과 달구벌, 심지어는 국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덕행 실천으로 이어져 15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남평문씨 인홍세거지 가문을 국내 유수의 명문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나는 인홍세거지를 통해 풍수가 시간[때]과 공간[장소], 그리고 인간 간의 삼간(三間) 예술이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됐다.

인홍세거지를 찾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고색창연한 기와집이나 아름다운 꽃 같은, 눈에 보이는 경관물들만 볼 게 아니라 그곳 장소흔(魂)의 백미를 이루고 있는 남평문씨 후은공파



수봉 선생이 작고한 후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1. 추조문 2. 특발문. '대한국 역사의 주인 되는 어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네모 안).

사람들의 미학적인 심성과 덕행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을 통해 '명당의 참모습'이란 진정 어떤 것이며, 또한 인생사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풍수를 알았던 開基祖 문경호와 지리를 알았던 中興祖 문봉성

인산재(仁山齋) 문경호(文敬鎬, 1812~1874)는 원래 지금의 세거지에서 동남쪽으로 200 여 m 떨어진 인홍마을 본동 양지 편에서 살았다. 1872년에 현재의 죽현 종택 자리에 초가집을 짓고 이거(移居)하면서 처음으로 인홍세거지 터를 열었다. 대구의 달서면에 살았던 선고(先考) 문무일(文武一, 1777~1833)이 1800년대 초에 이미 현재의 광거당(廣居堂) 터에 용호재(龍湖齋)를 지어 재실 겸 자손 교육 장소로 활용했다지만 그것은 주거용 집이 아니었다.

세거지 터에는 본디 인홍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임란 때 소실된 이후로 그곳은 줄곧 농경지로 이용돼 오고 있었다. 예부터 절터는 '십불상(十不相)'에 포함돼 풍수에서 택지(宅地)로 금기시하는 터일 뿐만 아니라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 「복거(卜居)」조에도 '무릇 주택에 있어서, 탑이나 무덤, 절이나 사당, 그리고 신사(神祠) · 사단(祀壇), 또는 대장간과 옛 군영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집 대문에 걸려 있는 당호 문패와 아호 문패, 그리고 성명 문패.
죽현(竹軒: 고조부 문달규의 아호)을 우러러 받든다는 의미를 지닌 '사죽현(思竹軒)'을 당호와 아호로 겸해 사용하고 있다(원 안).

(軍營) 터나 전쟁터는 살 곳이 못 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인홍사 옛터에다 집을 짓게 되었던 것일까? 나는 풍수에 일가견이 있었던 그가 과감하게 역발상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당시만 해도 세거지는 일족이 모여 사는 마을로서 양반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였다. 양반들은 대개 잘 생긴 명산 하나를 골라 그 산자락에 세거지를 조성함으로써 명문가로서의 양택명당 정체성 [identity]을 확보하고자 했다. 문경호의 눈에는 천수봉이 그런 목적에 딱 부합하는 풍수적 명산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풍수 동티'였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터를 잘못 건들면 재앙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풍수 동티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옛 인홍사 터 안에 감히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나이 환갑에 이르자 풍수 동티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명산이 인물을 낳는다는 '산관인정(山管人丁)'의 풍수 철리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다. 천수봉

자락 옛 인홍사 절터에 가문의 중흥을 꾀할 살림집이 들어선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년 전 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특히 임(孕)이 빼어난 천수봉 아래 바로 그 터에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 후일 그 세거지가 남평문씨 ‘후은공파’라는 새로운 지파(支派)의 본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경호는 역발상으로 절터에 집을 지을 결심을 한 연후에는, 철저하게 풍수 논리를 바탕으로 천수봉 아래 중심지맥에 놓여 있는 혈 자리를 찾아 거기에다 초가집을 지었다. 그 집 [현재의 죽현종택]이 후일 전후좌우로 반듯하게 균형 잡힌 세거지 주거경관이 만들어질 때 기준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세거지 공간의 동서 방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골목에는 그를 기리는 ‘문경호나무’로 명명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골목 가장 안쪽에 죽현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몇 해 전 여름, 수백 살 된 그 회화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지금은 그 자리에 후계목이 다시 심어져 있다. 조상이 후손들의 현관영달을 염원하며 기념식수해 놓았던 나무가 이제는 거꾸로 조상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리는 일종의 보본반시(報本反始) 나무로 탈바꿈하여 무력 무력 자라고 있다. 아무렴, 천수봉의 천수는 곧 무량수요, 무량수는 또 영생불멸을 상징하는데, 어찌 그런 정토(淨土) 위에 있는 개기조(開基祖)를 기리는 상징목이 그리 쉽게 단절돼 사라질 수 있으랴. 인홍 후손들이 건재하는 한 조상을 추모하는 그 상징목도 영원히 대를 이어갈 것이다.

남평문씨 인홍 가문은 문경호의 손자인 후은(後隱) 문봉성(文鳳成, 1854~1923) 대에 이르러 막대한 부(富)를 쌓게 된다. 그 원동력은 바로 문봉성의 지오그래피[서양지리학]적 소양이었다. 그는 특히 마을 앞 천내천과 마을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낙동강이라는 두 물줄기의 상대적 입지성에 주목하고 그 활용 방법을 자각하게 됐다. 그것은 『택리지』에서 강조한 계거(溪居)와 강거(江居)의 특장점을 잘 융합해 활용한 합리적인 생활환경 이용의 좋은 모델이었다.

문봉성은 천수봉과 천내천이 배산임수를 이루는 계거지인 인홍세거지에서 살았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친 손을 잡고 강창(江倉) 죽곡산에 있는 조부 산소를 오가면서 낙동강 사문진과 금호강 강창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다양한 물산들의 수상교역 현장을 눈여겨보게 됐다. 그리고 『택리지』에서 말한, 주거는 ‘강가에 사는 것이 시냇가에 사는 것만 못하지 [江居不如溪居]’만, 생리(生利)는 오히려 ‘시냇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溪居不如江居]’는 논리를 깨닫게 된다. 후일 그는 수상교역 사업에 뛰어들어 큰돈을 모은 후, 그 돈으로 농지를 사들여 인근 마을에 있는 소작인들까지 써가며 대농 형태의 광작

농업을 경영하였다. 당시에 그가 소유한 토지는 무려 160여만m²(50만평)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1910년 둘째 아들 문영박과 함께 초가였던 용호재를 헐고 광거당을 새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권당[인수문고의 전신]’을 설치해 전국에 걸쳐 귀한 책들을 사들인 다음 문중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선비는 누구나 광거당에 머물며 수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광거당은 일제 강점기 국내의 많은 유학자들이 모여 강론하고 공부하던 민간 아카데미의 최고봉이었다. 암울했던 시기에 자신들만의 물질적인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민족적 사기(士氣)를 고취하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남평문씨 인홍 가문은 그로써 명실 공히 국내 유수의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봉성의 대범한 인격과 덕행은 그의 직계 후손들이 2000년도에 ‘남평문씨 후은공파’를 결성함으로써 빛을 보게 됐다. 현재 세거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후은의 아들 삼 형제 후손들이다. 아들 손자가 분가하면서 세거지 안에 차례로 집을 지은 것이다. 후은공파 보 머리말에, 인산재 경호공이 인홍을 개기한지 150년 9세에 이르고, 세거지에는 후은공 이하 7세가 났으며, 자손은 친손과 외손을 합하여 500여 명에 이른다고 적혀 있다. 인홍 세거지를 본산으로 하는 남평문씨 지파 이름을 ‘후은공파’로 정한 이유를 알 듯하다. 가문과 숭조정신이 갈수록 퇴락해 가는 작금의 세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가계도와 가통을 만든 후은공파의 중대 있는 행동에서 다시 한 번 명문가다운 품격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 되는 어른, 문영박

문경호가 세거지 터를 잡고, 문봉성이 큰 부(富)를 이루었지만, 남평문씨 인홍 가문을 전국적인 명문가 반열에 실질적으로 오르게 한 인물은 수봉(壽峰)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이다. 그는 부친과 함께 광거당을 통해 문사(文士)들을 후원하고 만권당에서 책을 출판해 문풍을 진작시키는 외에도, 전국의 명유(名儒)들과 교유하면서 상해임시정부에 11년간 독립운동 군자금을 지속적으로 송달해 주었다. 일경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임정 요원을 통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아들과 함께 옥고를 치르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거유(巨儒)이자 국내 최고의 장서가이고, 또한 애국지사이기도 했던 그를 언젠가는 우리나라 근대기 문화인물로 반드시 현양해야 할 듯싶다.

인홍세거지 안에는 그의 겸양지덕과 덕행을 확인시켜 주는 다수의 유품과 증거물들이 남아 있다. 광거당 동쪽 마루 끝에 ‘아회(雅懷)’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다. 문영박의 친필

인데, 아회는 이백이 쓴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라는 시에 나오는 말이다. 시 속에서는 ‘고상한 회포’라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아회’는 보통 명사로서 ‘바르고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한 집안의 가훈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인 것이다.

수봉의 다섯 아들이 부친을 기리기 위해 지은 수백당[수봉정사] 경내에는 ‘수봉선생 송덕비’와 한 쌍의 ‘문인석’, 그리고 이수(螭首)라 불리는 용무늬가 조각된 비석 머릿돌 한 개가 놓여 있다. 문인석은 수백당 마루 밑에 누워 있고, 비석 머릿돌은 담장 밑에 놓여 있다. 그의 묘지에 있어야 할 이 두 가지 석물이 수백당 경내에 있게 된 까닭은 생전에 수봉이 그의 자제들에게 자신의 묘를 치장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문인석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혹여 처사로서 살다간 선생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묘소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수백당 마루 밑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광원 담장 아래에 세워져 있는 선생의 송덕비도 원래는 수백당 마루 밑에 누워 있었다. 광거당을 통해 은덕을 입었던 많은 선비들이 와병 중인 수봉선생을 위해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를 세거지 입구에다 세웠는데, 당시자인 수봉이 그것을 뽑도록 하는 바람에 무려 82년 동안 수백당 마루 밑에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후손들이 뒤늦게나마 그것을 꺼내서 담장 아래에 반듯하게 세워놓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인 듯하다. 수백당은 수백당 대로 장소 스토리텔링이 풍요로워져서 좋고, 또 방문객들은 방문객들대로 그의 인품을 헤아려 볼 수 있어서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것이다.

그런데 수봉 선생과 관련된 유품 중 2020년 2월 6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아주 귀한 문서가 두 개 있다. 1930년 12월 문영박이 별세하자 1931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인홍가문에 보낸 문영박 추조문(追弔文, 추모하고 조문하는 글)과 문원만 특발문(特發文, 특별히 보내는 글)이다. 분홍색 비단천에 활자판으로 인쇄된 그 추조문에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상해임시정부가 그를 ‘대한국춘추주옹(大韓國春秋主翁,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되는 어른)’으로 극존칭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가 처음 수립될 때부터 가장 힘들었던 초창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봉 선생으로부터 경제적인 큰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각별히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런 호칭을 사용했을 법하다.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 되는 어른’이라는 존칭은, 세거지 입구의 문익점 동상 하단부에 적혀 있는, ‘우리 동쪽 나라[조선]가 삼백 년 아래로 의관[옷차림] 문물이 찬란하게 새로워진 것은, 실로 강성군[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공덕은 강성군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한 조선 21대 영조왕의 전교(傳敎)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다.

비록 시대와 기여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준 인물[어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그토록 영예스러운 문영박의 추조문을 방문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원본을 액자에 넣어 인수문고 안 센터 자리에 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렇더라도 추조문의 사본과 소개 글 정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천으로 된 이동식 입간판에다 관련 사진과 글을 담아 수백당 경내에 비치해 두면 좋을 듯하다.

면 조상이라는 사실 외에는 인홍세거지 터와 특별한 인연도 없는 문의점의 이력은 동상 및 글귀, 각종 관련 조형물들로 잘 소개하고 있는 반면, 세거지와 생로병사를 함께 했던 수봉 선생의 이력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광 속에 보관돼 있는 수봉 선생의 전신(全身) 초상화 사본도 만들고, 또 달성국민체육센터 옆 달성역사인물동산에 조성돼 있는 수봉 선생의 흉상(胸像)처럼 그와 관련된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 수백당 안에 비치하고 안내 글을 부기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곳을 정녕 장소흔이 살아 숨 쉬는 아주 멋진 한옥형 수봉기념관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으면 말이다.

가풍을 잇는 후은공파의 후예들

창강 김택영(1850~1927)은 그가 쓴 인산재의 묘갈명에서 ‘예(禮)로써 노비를 대한 처사의 깊고 인후한 덕은 공경 받아 마땅하다’고 칭송하고, 손자인 문봉성과 증손자인 문영박의 행실이 모두 이에서 근원하였구나 “라고 썼다. 한마디로 ‘왕대밭에 왕대 나고 쑥대밭에 쑥대 난다’는 말이였다. 어떤 인홍 후손은 이미 고회를 훌쩍 넘겼음에도 문중이 욕을 먹지 않도록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말한다. 과시 시대를 초월한 명문가의 후예다운 심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인홍세거지에는 조상을 사랑하고, 가문의 전통을 사랑하고, 세거지를 사랑하고, 향토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듯하다. 재실을 짓는다거나 선대 묘소를 잘 돌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승조(崇祖) 정신이야 여느 문중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당호 (堂號)나 누명(樓名), 나무이름 같은 것을 조상과 연계시켜 명명하는 것은 인홍세거지만이 지닌 매우 독특하면서도 개성 있는 주거 인문환경 조성법이라 할 수 있다.

수봉 문영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실의 당호를 수봉정사 또는 수백당(아호이기도 함)이라 짓고, 누명을 ‘수백당(문영박)을 생각하는 누’라는 의미로 ‘사백루(思白樓)’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다. 현재가에 살고 있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경우는 고조부인 ‘죽현(竹軒)’ 공을 우러러 받든다’는 뜻을 지닌 ‘사죽현(思竹軒)’을 당호 겸 아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집 대문 상단에 붙어 있는 사죽현이라 적힌 작은 당호문패는 조상과 후손이 하나로 완전 융화된, 한마디로 조상애(愛)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화경관물이라 할 수 있다.

후은공파 가문은 또한 국내 최고의 문중문고인 인수문고를 보유한 가문으로서 책을 특히 사랑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장서가이기도 했던 수봉 문영박의 서책애(書冊愛)는 그의 아들인 문시채·문진채를 거쳐 손자인 문희웅[문태갑] 대에 이르러 또 다시 크게 발현됐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중곡(中谷) 문희웅이 1만여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한 기준의 인수문고 건물 옆에, 5천여 권의 현대 서적을 장서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곡서고를 1993년에 새로 세운 것이다.

인수문고에 소장된 도서들이 대부분 19세기까지의 전적문고들이어서 그를 보첨하기 위해 주로 20세기에 간행된 한국학 중심의 책들을 모아 장서해 놓았다고 한다. “책은 사람에게 없어선 안 될 양식이요, 더욱이 나의 많은 것이 담긴 중곡서고는 더없이 소중한 곳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크게 내어 놓을 만한 것은 못되나 이 서고로 본 문고[인수문고]에 20세기의 관계서적을 다소나마 더했으니 앞으로 누가 21세기의 새로운 책을 첨가한다면 인수문고는 더욱 값진 문고가 될 것이다.” 2001년 봄에 중곡이 남긴 말이다. 필자도 국내 최고의 문중문고 가풍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손 중에 꼭 그런 인물이 나와 주길 소망한다.

후은공파 가문의 세 번째 가풍은 바로 자신들의 세거지에 대한 사랑이다. 그 장소애(愛)는 절제된 공간 개발과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로 집약된다. 그들은 타성을 가진 사람이 세거지 안의 땅과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치규약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9가구로 된 세거지에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기로 했다. 논밭과 잘 어우러진 목가적인 고품격 경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아울러 방문객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세거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도 안 된다. 보다 깨끗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그들의 세거지 사랑은 한결음 더 나아가 나무심기로 이어진다. 현재 세거지에는 집 안팎으로 매화나무와 능소화 꽃나무, 산수유나무, 소나무 같은 각종 관상수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개기할 때부터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비보(裨補)숲을 만들었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겨울, 인수문고를 관리하며 30여 년간 1천 5백여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고 문익점 유적지와 인홍원 조성에 앞장섰던, 문태갑옹이 94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그리고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가족 묘원(墓園)의 은행나무 밑에 묻혔다.

봄이 오면 당신이 가꾼 형형색색의 매화꽃을 보러 상춘객들이 몰려들 테고, 당신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땅[자연]과 집[양택·음택]과 사람[生者·死者]이 하나로 융화된 삼위일체 명당, 그곳이 바로 인홍세거지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가풍은 이웃 사랑과 덕행 실천이다. 그 이웃은 좁게는 인홍마을 [본리1리]에서부터, 넓게는 달구벌과 나라 전체로까지 확대된다. 인홍세거지는 영화를 찍든 사진을 찍든, 세미나를 하든 공연을 하든, 관광을 하든 답사를 하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인수문고의 장서도 신청을 하면 거경서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어디, 열람뿐이던가. 후은공파 문중은 서울의 모 출판사로 하여금 문고에 소장된 문집 가운데 100여 종과 기타 상당량의 문현을 영인, 반포할 수 있도록 협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인홍 명구(名區)에서 태어나, 명구 밖으로 나가 세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들 수 있다. 그는 달구벌 환경 개선사업으로 국채보상기념공원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외에 6백 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것이 달구벌의 연평균 기온을 2°C 떨어뜨려 대구를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특히 인홍세거지 바로 뒤의 천수봉 동쪽사면 아래에 있었던 대곡쓰레기매립장을 대구수목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쓰레기처리장을 비보해 재활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그는 현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런저런 대소사에 참여하면서 마을 어른으로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사)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의 이사장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집 대문에, ‘얻었다 한들 본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본래 없던 것’이라는 경구가 붙어 있다. 실존의 미학이란 이같이 자기배려, 즉 자기 돌봄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외부의 가치기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발견해 내어 그 역량을 펼쳐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인홍사 시절에는 보각국사 일연이 그 터에서 『역대연표』를 간행하며 나라와 중생을 보듬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봉 문영박이 서책을 통한 애국지사의 길을 걸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무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터의 변함없는 장소흔은 ‘물질 너머의 나눔 정신’이다. 서책도 나누고, 부(富)도 나누고, 장소도 나누고, 꽃도 나누고, 재능도 나눈다. 인홍세거지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명덕초등학교 옆)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금)	09:00~19:00		09:00~18:00
주말 (토~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관외 대출증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3. 유의사항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문의 : ☎ 053-257-2280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문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053-217-0228

발행인 곽대훈

- 『2·28햇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백재호

-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편집위원 김상진, 김약수, 송정희, 이은경, 조두진, 하청호

-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228.or.kr

- 『2·28햇불』은 비도공 서적 용지인 두성페이퍼 아도니스러프 76g으로 제작됩니다.

인스타그램 228minju(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쇄 2025년 6월 26일

발행 2025년 6월 30일

인쇄처 교육사 Tel. 053-254-0088

